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2024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국내 선진지 결과보고서

강릉시의회
GANGNEUNG CITY COUNCIL

강릉시의회
GANGNEUNG CITY COUNCIL

목차

	연수일반	**01**
1	연수개요	01
	연수일정	01
	연수내용	**02**
	르스페이스	02
	미추홀공원	04
2	혜윰공원	05
	보령문화의 전당	07
	대천해수욕장	08
	보령머드테마파크	10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11**

1 연수일반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4. 10. 14.(월) ~ 10. 16.(수) / 2박 3일

□ 방문지역

○ 장　　소: 인천, 보령시

- (1일차 / 10. 14.)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청라호수공원
- (2일차 / 10. 15.) 혜윰공원, 대천해수욕장, 보령문화의전당
- (3일차 / 10. 16.) 보령머드테마파크, 무창포해수욕장

□ 연수인원: 14명

○ 시의회: 8명(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 허병관, 김영식, 윤희주, 김은숙, 김홍수,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 수　행: 6명(행정전문위원, 김근하, 김주현, 이연상, 이재경, 김영환)

연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연수내용	
10.14. (월)	인스파이어 아레나, 르 스페이스 견학	인스파이어 아레나, 르 스페이스 견학	
	청라호수공원	미추홀공원	이동 동선 문제로 방문장소 변경
10.15. (화)	혜윰공원	혜윰공원	
	보령문화의전당	보령문화의전당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10.16. (수)	보령머드테마파크 방문	보령머드테마파크 방문	

2 연수내용(주요 방문지)

르스페이스, 인스파이어 아레나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4.(월) 14:00

○ (장　　소) 인스파이어

○ (내　　용) 르스페이스(lespace)는 2024년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약2,000평)의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Lumiere 빛, Experience 경험, Space 공간을 결합으로 새로운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임.



【르스페이스】

- 기존의 미디어아트에 지형과 사물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구현함.
- 기존 비주얼 감상 중심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터치 및 모션 인식, 소리 감지 등의 인터랙티브 기술과 더불어 작품 자체가 움직이는 키네틱아트, 홀로그램, 포그 분무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었음.

미추홀공원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4.(월) 17:00

○ (장　　소) 미추홀공원

○ (내　　용) 맨발걷기길 견학

- 인천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노력중이며, 현재 인천 내 44개의 맨발걷기길이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11개의 길을 조성 예정임.



【미추홀공원 맨발황톳길】

혜윰공원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5.(화) 10:00

○ (장　　소) 혜윰공원

○ (내　　용) 반려동물 공원

- 2024년 7월에 개장한 인천시 최초 반려동물공원인 연수구 혜윰공원은 일반 근린공원에서 반려동물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했음.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 반려견 체고 기준표에 따라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체고 구분없는 프리존으로 분리 운영하고 애견 간식과 장난감으로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 중임.
-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기반으로 반려견순찰대 운영,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문화정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전하려 노력 중임.
- 반려견들이 뛰어놀기 좋도록 잔디로 이루어 졌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처리 자판기를 설치하여 반려견의 배변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보령문화의 전당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5.(화) 14:30

○ (장　　소) 보령문화의전당

○ (내　　용)

- 보령문화의전당은 과거 장항선 철도 대천역이 있던 자리에 건설된 건물로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보령문학관, 장암서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문화시설임.



【보령문화의전당】

- 별도의 여러 개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 안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중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관광객의 집중도를 높였음.

대천해수욕장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5.(화) 15:40

○ (장　　소) 대천해수욕장

○ (내　　용)

- 1930년에 개장하여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한해 방문객 수가 1천만 명에 이름.



【대천해수욕장】

- 서해안 최대 휴양지이며, 백사장 길이가 3.5km 폭 100m 달하는 대형 규모 해수욕장으로, 중앙에는 머드상징조형물이 있는 머드광장과 바다를 보고 좌측에는 노을광장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분수가 있는

분수광장이 있음. 머드광장은 머드축제기간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세계적인 축제 관광지로써 위상을 높여가고 있음. 분수광장은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여름 야간에는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가 연출되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만남의 장소로써 각광을 받고 있음.

- 또한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분수광장에서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즐길거리를 추가제공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테마파크장을 분수광장에 조성하였음. 그 결과 ‘23년 기준 보령을 2,475만여명이 방문했는데 겨울에 22%인 545만명이 방문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경포해수욕장과 동일하게 올해 51일간 운영하였으며, 야간개장 또한 실시하였음. 그리고 개장기간 동안 방문한 관광객은 580만명 방문하였음.

보령머드테마파크

□ 방문현황

○ (방문일시) 2024. 10. 16.(수) 10:00

○ (장　　소) 보령머드테마파크

○ (내　　용)

- 보령머드테마파크는 ‘22년 5월에 준공하여 충남권역을 대표하는 컨벤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컨벤션동에는 국제행사가 가능한 8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6개 회의실, 방송실 등이 갖춰져있고 체험동에는 머드를 활용한 머드축제&화장품 홍보관, 머드뷰티치유관 등이 들어서 마이스와 웰니스 전문 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고 있음
- ‘23년 기준으로 충남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탄소중립확산대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임직원 워크숍까지 총 243건의 행사가 열렸으며, 누적 행사 참가자는 4만1천520명으로, 약 5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됨
- 특성화 부분으로는 올해 ‘7월 새롭게 개관한 보령머드테마파크 내 머드뷰티치유관을 통하여 머드를 사계절 피부미용 체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충남도립대(뷰티코디네이션학과)와 뷰티케어 프로그램, 전문인력, 장비 등 공유를 통해 노하우를 흡수하여 운영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보령머드테마파크】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르스페이스도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처럼 대규모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지형과 사물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구현하여 관광객의 인기코스가 되고있으며, 이와 같은 미디어아트를 접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한 예로 춘천국립박물관은 다양한 공간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미디어아트를 접합되고 있고 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음. 우리시도 **오죽헌 등 다양한 공간에 접합하여 입체적인 경험을 입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
- 시민들과 가까운 공원 내에 짧지만 실속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였으며 미주홀공원도 382미터로 왕복 형태로 조성되어있으며 한쪽에는 세족장이 마련되어 깨끗하게 씻고 걷고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이용률이 좋았음 → 우리시의 경우 맨발걷기는 대부분 해안가쪽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 위주로 시민들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에 짧지만 왕복형태로 조성**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
- 방문하진 않았지만 인천시는 마사토길, 황톳길, 모래길과 같은 다양한 구성의 맨발 산책로 구성과 에어건, 족욕장, 신발장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음 →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해안가 맨발 걷기길에 **강릉시만의 특화 편의시설 및 걷는길 조성 필요**
- 반려동물 일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발달 정도가 또 다른 선진국의 척도로 적용되고 만큼, 동물과의 공존에 관련된 문제가 도시 사회의 새로운 논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강릉시의 경우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가 1,085마리(2024. 9. 기준)로, 원주시, 춘천시*에 이어 강원지역 내 반려동물 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곧 강릉시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을 써야 함을 의미함**. *** 원주시 2,082마리, 춘천시 2,063마리**

- 혜윰공원은 구 차원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해 기존의 **도시근린공원을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하여 반려동물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관련 법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공원은 10만㎡이상 근린공원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일 경우 조성이 가능함. 강릉시의 경우, 10만㎡이상 근린공원이 2개소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를 반려동물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제안으로 '23년 송정동 내에 **반려동물 소공원이 조성**되긴 했지만 반려동물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음. **보호소 중심의 테마형 동물 놀이터 조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릉시의 경우 성산면에 위치한 동물사랑센터 내의 동물 놀이터가 있는데, 기존 놀이터의 확충이나 추가 조성을 통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강릉시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 관광도시로써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릉시에서 열린 강릉문화야행,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릉대도호부관아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해마다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은 강릉시가 문화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보령문화의전당은 복합문화시설로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보령의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냄. 특히, 보령박물관 내에는 60년대 보령거리가 조성되어 있음.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포토스팟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을 유치하며, 실제로도 60년대 보령거리는 보령시 관광객들이 꼭 한 번 방문하는 장소가 됨.
- 이에 착안하여 **관광객에게는 강릉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경포해수욕장보다 계절성의 한계를 더 잘 극복하고 있음. 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사의 경우 겨울에는 경포 해돋이 축제가 여름에는 썸머페스티벌, 비치비어베스티벌이 있으나 그 외에 계절에는 경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단발성 행사 외에는 없었음. 반면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봄철에는 보령 AMC 모터 페스티벌과 함께 조개구이 축제가 열리며, 여름에는 보령 머드축제가, 가을에는 김축제가 열리고 겨울에는 겨울바다사랑 축제가 개최되어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되고 있음. → 경포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놀거리 및 축제 개발 필요**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의 경우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행위지만 현실적인 한계(판매 자체는 합법, 과태료 부과 시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로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인근 상점들과의 협의 및 시의 노력으로 해수욕장 인근 상점은 **폭죽 판매를 여름 개장기간 동안만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폭죽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고 있음. → 폭죽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판매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므로 대천해수욕장의 **판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방법 공유 필요**
- 대천해수욕장도 경포해수욕장과 동일하게 소방요원이 편성되나 구급대원이 주로 편성되는 경포와 달리 구조대원와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전문 해변구조대가 편성되어 2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시 또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보령시와 비슷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활용하여 도시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2026 ITS 세계총회를 시작으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마이스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컨벤션을 운영하지만 수도권 일부 컨벤션 센터를 제외하면 해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높은 고정비 때문에 대부분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가고 있는

실정임. 보령머드테마파크의 경우 소규모 행사 구분없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여 회의실의 가동률이 높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높은 가동률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운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우수사례로 뽑힌다고 함. 또한 지리적으로 보령의 메인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인접하여 주변에 숙박, 식음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컨벤션 홍보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시는 컨벤션이 지리적으로 다소 열악한 편(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 여부, 인근 편의시설 존재 등)이지만 대도시 못지 않게 숙박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한 **특화 컨텐츠를 시에서 발굴**하거나 청주 오스코의 사례처럼 전문 전시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 센터 운영과 전시회 개발·운영을 병행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